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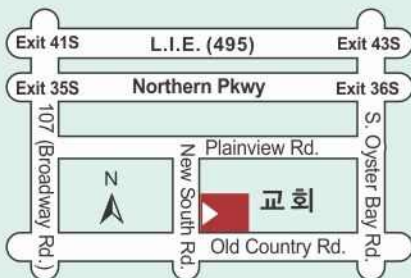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I-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I-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 배 시 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 도 자	김중훈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다 같 이		
찬 송 Hymn	272장, 295장		
기 도 Prayer	이진배집사	정수영장로	김근태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요(John)5:1-9		
찬 양 Anthem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 씬 Sermon	네가 낮고자 하느냐? 김중훈목사		
찬 송 Hymn	630장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찬 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한규만집사	2부 박재우장로	3부 지재홍장로
방 송 설 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기쁨과 감사함으로 리오프닝을 맞이하게

지난주일 설교요약

본문: 막(Mark)10:46-52

제목: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냐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건강, 경제, 신분, 결혼, 인간관계.....)

<이야기의 배경>

여리고에 맹인 바디매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는 겹옷을 내 버리고 예수께로 뛰어 갑니다. 예수님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맹인 바디매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문제 속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1. 기회를 잃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나 가십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맹인 바디매오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고후 6:2). 언제나 지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2. 없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용하세요.

맹인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귀가 복된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롬 10:17).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보지 못하지만 입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십니다.

3.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4. 장애물은 피하지 말고 극복하세요.

주님께 가는 길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 장애물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장애물은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장애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면 더 큰 장애물이 앞에 다가 옵니다. 맹인 바디매오는 장애물 앞에서 더 크게 소리 질러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주님의 발이 머물렀습니다.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을 최대한 가동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때 주님의 발이 머무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장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5.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고 물으시는 주님께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대답합니다. 뻔한 질문과 뻔한 대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뻔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구하면 두루뭉술한 믿음이 됩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일도 우연히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랜 세월동안 맹인으로 살아 온 것에 익숙해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살아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이야기

예담목장

지난 6월 목장예배는 1년이 넘는 팬데믹 이후 교회가 Reopening 되면서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굽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눔이 그동안 단절되었던 귀한 만남이기에 몇 배의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식사를 마치고 목장예배를 드리며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가슴 뭉클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담목장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며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각 가정에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담목장을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목장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일 찬양예배

"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어련하시겠나."

심성실집사(물댄동산)

이사는 육신과 정신 모두 힘들다. 그래서인지 생활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단연 일 등이 이사라고 한다. 더군다나 적지 않은 나이에 이민 와서 이사하는 일이란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팬데믹 들어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받고 있는 은퇴 연금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집을 찾는데 있어서 먼저 교회에서 멀지 않았으면 했다.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교회와 가까워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배웠다. 뿐만 아니라 새벽예배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서다. 두 번째는 부부가 살기에 세금도 적으면 했다. 세 번째는 지난번 집 공사 때 사기를 당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에 아예 집수리가 필요 없는 집이었으면 했다. 네 번째는 조용한 동네에 2층이었으면 했다.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면 나중에 moving chair 달면 된다고 생각했다. 다섯 번째는 거울에 해가 잘 드는 남향이었던 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만해지고 평안해졌다. 그 날 이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Silver town'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하시고, 2020년 12월 타운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셨다. 담당자는 워낙 인기가 좋아 최소한 1-2년 정도는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연락이 왔다.

실버타운 아파트를 처음 보던 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구하던 기도제목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가깝고, 그 비싼 School Tax도 없고, 조용한 동네에, 남향이다 집수리도 전 주인이 깔끔하게 하고, 2층인데 더욱 놀란 것은 구하지 않았던 moving chair까지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뤄주셨다. 담당했던 직원이 나에게 몇 번이나 'You are so lucky'라고 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데 놀란 나는 나도 모르게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다. "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어련하시겠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어련하다'의 사전적 의미: '걱정하지 않아도 잘될 것이 명백하거나 뚜렷하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7월 21일

기 도 정정숙권사
말 씬 김종훈목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씬 김종훈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7월 25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한규만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박재우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지재홍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7월 28일 수요일기도	최양미권사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 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담임목사 동정:** 오늘 오후 4시 뉴욕한인연합교회 새담임목사 부임예배 설교
3. **7월 목장예배 안내:** 7/23(금) 오후 8시 30분, 각 목장별로
*7/21 수요일예배 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 모임 및 목장교안 배부
4. **예일 유년부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여름 프로그램(Yale Kids Afternoon Meeting)**
*기간: 7/12-8/13 월-금 12:30pm-2:30pm(문의: 박에스터전도사)
5. **새가족과 함께 하는 바비큐 파티:** 오늘 3부 예배 후 친교실(주관: 바나바사역부)
6. **교역자동정:** 박성하목사(부친상/한국방문)
7.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구속자권사&한기하장로(남편 생일)
- 사랑의식탁:

새교우

- 이영실권사 (사랑선교회, Woodbury, NY)

행사예고

- 5/13-7/29	피택 직분자 교육(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교회)
- 7/5-8/13	예일 여름학교(Yale Disciple Land Summer School)
- 7/25	제직회

QT본문

요일	일(18)	월(19)	화(20)	수(21)	목(22)	금(23)	토(24)
본문	사(Isa) 43:14-28	사(Isa) 44:1-20	사(Isa) 44:21-45:7	사(Isa) 45:8-17	사(Isa) 45:18-25	사(Isa) 46:1-13	사(Isa) 47:1-15

목양 칼럼

2021. 29. 두 종류의 교회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 건물과 그 건물을 채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족함도 있고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보이지않는 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의 종류를 나누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동유럽에 있는 동방교회가 교리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1517년에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를 개신교(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개신교 안에도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 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인가?

처음 전제로 돌아 가 보면 이 세상의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변화되어 갈 때 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양 손을 놓고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쪽 손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고, 다른 쪽 손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두 손이 완전히 겹쳐지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모양만 교회이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겹쳐져 있으면 조금만 주님의 냄새가 나고, 나머지는 인간 냄새가 나는 교회입니다. 반쯤씩 겹쳐져 있으면 반은 인간적인 교회이고, 반은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일교회는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출발한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고백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마 16:13-19).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충성하시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이 우리 가정의 평안이며, 교회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